



개원 17주년을 즈음해서....

지난 1986년 방재기술의 세계화, 과학화를 모토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소로 출발한 우리 연구원이 어느덧 개원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다른 연구기관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약속되지 않는 민간 연구소 형태로 출발하여 80년대 당시 국내 민간 연구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방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손해보험 및 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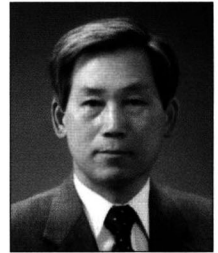
그 결과, 연구원은 4백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장비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에 따른 시험업무 및 방재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중심으로 우수 방화제품 및 안전관련 제품에 대해 엄정한 기준과 시험절차를 적용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해주는 FILK 품질인증 업무를 비롯, 축적된 방재기술을 활용한 교육업무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은 국내 방재시험연구 분야에서는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 받았고, 또한 KS인증 지정 심사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선박 및 선박용 물품 형식승인 시험기관, 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 지정 연구기관, 병역특례 연구기관,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유럽연합 인증 시험기관, 영국 로이드선급 등 세계 주요 선급 인정 시험기관, 미국해안경비대(USCG) 지정 선박용품 시험기관 등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방재산업의 기술향상을 통해 손해보험산업의 손해를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중소기업청과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금속 흡음재를 이용한 불연 방음판 개발’, ‘다기능형 화재감지기 베이스 회로 개발’ 등 모두 9개 과제에 대해 화재안전분야 10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는 미국정부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미국해안경비대(USCG) 선박용품 화재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그 동안 USCG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시험기관을 찾아야 했던 국내 제조업체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 원장
유 은 열



또한, 우수 방화제품 및 건축자재 등에 'FILK 마크'를 부여하는 연구원의 FILK 품질인증은 제조업체에게는 신뢰도 향상에 따른 판매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재산업 발전과 안전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신용보증기금은 FILK 품질인증 기업을 신용보증 우대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8월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용 화재경보설비의 경우 FILK 품질인증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FILK 품질인증제도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FILK 품질인증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의 UL마크와 같은 세계적인 품질인증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내 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방화용품 보급에 앞장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와 같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강화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나라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수 년 전부터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제표준화기구 화재안전분야 기술위원회(ISO/TC92)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2002년도에 "건축내장재의 화재안전성 표준화 연구" 등 33종의 규격(안) 제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재안전 관련 KS규격의 성능기준화 작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는 숭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국내 손해보험 및 방재산업의 굳건한 초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연구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중심의 업무를 지향하여 고부가가치 업무를 창출함으로써 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할 여야할 때입니다.

개원 17주년에 즈음하여, 방재시험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작은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방재기술의 과학화, 세계화라는 대의에 매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요구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발돋움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안전을 지켜줄 등불을 지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